에너지의 새싹을 틔운다!

끊임없는 연구 · 우수한 기술 · 최고의 제품.
전기화학분야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엘켐텍'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 환경 분야에서 엘켐텍(대표 문상봉)은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한다.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여러 관련기관에서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무섭게 크고 있는 새싹 엘켐텍을 함께 만나보자.

▲ 도전정신과 자신감 넘치는 엘켐텍의 젊은 직원들과 그 중심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문상봉 대표(오른쪽 세번째)

Q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A 환경 · 위생 분야와 에너지 분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분야를 대표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 · 위생 분야에는 살균제발생기가 있습니다. 기존 살균제는 인체에 유해한 연소약품으로 제조되었으나, 저희 회사의 살균제발생기는 천연물질인 소금을 전기분해하여 살균제를 제조하는 것이지요. 이 제품은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하며 콤팩트해서 운전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분야의 제품에는 수소발생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물을 전기분해하여 고순도의 수소를 제조하는 전기화학적 수소발생장치입니다. 현재 반도체 등과 같은 첨단 제품의 제조 공정에 적용하고 있는데, 2015년에서 2020년경에 도래할 수소에너지 사회의 핵심 제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Q 창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A 전기화학 분야는 새로운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가장 적합한 분야입니다. 그것은 15년간의 연구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이 분야를 창업 아이템으로 정하고 사업을 착수하였는데, 그 당시 저희는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기화학기술의 적용분야를 규모가 큰 시장과 자금회전을 위한 소규모 시장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소형, 중형, 대형 시장으로의 접근 전략을 세운 후, 소형시장은 영업력을 키우고, 중형시장은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 창업을 했습니다.

Q 경영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처음엔 강남의 일반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제품개발 및 보완에 따르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03년 2월, 산학협력 지원이 용이한 서강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게 되었지요. 그 후 서강대학교와의 활발한 산학교류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창업 초기에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마케팅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지만 실적이 낮아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약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꾸준한 AS 및 기술 업그레이드 등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고, 현재 그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재 엘켐텍이 보유한 전기화학 관련 기술은 매우 우수합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 차별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러한 강점들을 살려서 전기화학 관련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와 수소 관련 분야 기술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더욱 개선하여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제품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강창업보육센터 최상조 매니저가 말하는 엘켐텍 : 엘켐텍의 기술적 우수성은 정부, 학계, 산업체 등 해당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상태다. 또한 세계 최고의 제품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엘켐텍은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